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01	01. 08	01. 15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장래황 성도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장래황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2월 축복인사 -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꼭, 다시 오십니다(공통적인 고백)

1. 성탄주일 -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2. 신년예배 - 다음 주일은 신년 성찬식 및 말씀카드 뽑기를 합니다(감사헌금을 드립니다)
3.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성탄 감사 및 생일 축하 행사로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4. 귀국 - 노지민 형제(31일 오전 11시, 브레멘 공항)
5. 생일 축하 - 장래황 형제, 김대철 형제, 김정규 형제, 김민혜 자매

교우동정

생일	김민혜 자매
새 교우	오서진 자매(성악 전공)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심 일 조	
성탄감사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성탄주일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122장	다같이
기 도 Gebet	-----	김영희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요일 3 : 1 - 4(신p390) (1.Johannes 3:1-4)	김영희 권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환송인사 Abschied	-----	노지민 형제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기쁘다 구주 오셨네(1,2절)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기도제목

1. 구주 예수 탄생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전도, 구제, 봉사, 영성훈련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되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인간은 누구도 죄 문제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는 '과녁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지나쳐도, 부족해도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집착해도 평안이 없고 등한시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참 좋은 이야기야,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야,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죄를 봐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처녀로서 임신한 마리아에게도, 낫아지신 예수님께도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무섭고 힘든 사건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열 달 동안의 끔찍한 시간이 지나면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김양재목사
(우리들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예수님 탄생이 왜 사람들에게 선물일까요?
2.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꼭 듣고 싶은 말을 나눠보세요